

퍼스트바이오·SK바이오팜,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‘1ST-104’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

- 최대 4,308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…개발·상업화 및 순매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
- SK바이오팜, 퍼스트바이오에 30억원 전략적 지분투자…중장기 파트너십 강화
- 차별화된 Type 2 LRRK2/c-Abl 이중저해 기전 기반의 파킨슨병 치료 후보물질 개발 추진

2026년 9월 17일 - (주)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(이하 퍼스트바이오, 대표 김재은)와 SK바이오팜(대표 이동훈)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‘1ST-104’의 글로벌 독점 라이선스 및 전략적 지분투자(SI)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.

선급금은 25억원이며, 후보물질 선정에 따른 단기 마일스톤 25억원을 포함한 단계별 마일스톤은 총 725억원이다. 여기에 추가 마일스톤을 포함하면 총 계약 규모는 최대 약 4,308억원에 달한다. 상용화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별도로 지급받는다. SK바이오팜은 퍼스트바이오에 3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결정해 후보물질 개발 협력을 넘어 중장기적 파트너십 기반을 마련했다.



[17일(목) SK바이오팜 판교 사옥에서 진행된 파킨슨병 신약 후보물질 도입 계약 체결식에서 (왼쪽부터) 퍼스트바이오테라퓨틱스 김재은 대표와 SK바이오팜 유창호 전략부문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]

기술이전 대상인 ‘1ST-104’ 프로그램은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으로 LRRK2와 c-Abl을 동시에 조절하는 이중저해 전략을 적용한다. LRRK2는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과 직접 연관된 치료 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. 다만 일부 기존 Type 1 LRRK2 저해제는 전임상 연구에서 폐 관련 이상 소견 등이 보고되면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.

퍼스트바이오는 이러한 기존 저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차세대 Type 2 LRRK2 저해제 프로그램인 ‘1ST-104’를 개발해 왔다. Type 2 기전을 기반으로 기존 저해제와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으며, 전임상 연구에서 표적 선택성 및 BBB 투과성을 확인하였다. 아울러 2024년부터 세계 최대 파킨슨병 재단인 마이클 J. 폭스 재단(MJFF)의 LRRK2 컨소시엄인 LITE에 참여하며 글로벌 수준의 학술 및 기술적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

퍼스트바이오 김재은 대표는 “이번 계약은 퍼스트바이오가 보유한 차세대 타깃 발굴 및 약물 최적화 역량을 증명한 성과”라며 “퍼스트바이오의 초기 신약개발 역량과 SK바이오팜의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역량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고 말했다. 이어 “SK바이오팜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후속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SK바이오팜 이동훈 사장은 “퍼스트바이오의 초기 발굴 역량과 SK바이오팜의 임상 개발 및 상업화 역량이 결합되는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”며 “확보한 후보물질을 성공적인 임상 개발로 연결해 파킨슨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”고 말했다.